

[로스쿨 합격기]

꾸준한 준비

이영한

- 목포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재학



I. 들어가며

3년 동안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며 만약 합격한다면 합격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3수가 자랑할 일은 아니기에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한번 수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II. 리트(LEET)

수험생들 사이에서 약간 중요성이 과대평가된 전형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 상세히 제가 했던 공부방법을 적겠지만,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 아니며 실질적인 반영비율 역시 미미한 학교가 많은 만큼 너무 리트만 파는 것보다는 영어나 기타 정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를 병행하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1. 1년차(2012년)

처음에는 학부에서 제공한 교내 특강을 이용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교내 특강을 수강하다 그만두고, 주로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스터디는 만나서 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방식을 서로 간단히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출 문제를 풀었지만, 그 이후부터 시험 3주 전까지 학원 모의고사에 집중했습니다. 기출을 풀 때에는 처음부

터 꽤 높은 점수가 나왔고 큰 변동 없이 점수가 계속 유지됐으나, 학원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수편차가 심해지며 성적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2년 7월 응시한 리트 역시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학원 문제에 매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문제는 기출 문제에 비해 어렵고 조금은 조잡한 부분도 있기에,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오답률이 높아지고 성적 또한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모의고사에서도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만 한다는 조바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버려야 할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 글자 한 글자를 더 꼼꼼히 읽는 버릇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시간관리에 실패해 못 푸는 문제가 많아진 것은 물론, 문제를 푸는 시야가 좁아져 손을 댄 문제마저 정답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모 인터넷 위키에서 ‘사실 모의고사가 수험생의 문제풀이 알고리즘을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바꾸어 문제를 푸는 감을 떨어뜨린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원모의고사는 시간관리기술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가끔 가볍게 푸시고,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2년차(2013년)

2월 말부터 스터디를 구성해 리트공부를 시작했고 10점 이상 성적이 올랐습니다. 시간관리 연습 등을 따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목차에서는 스터디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자 합니다. 스터디는 집에서 이미 문제를 풀어온 후, 한 문제 당 한 사람이 풀이 방식을 직접 설명하고, 스터디원들은 이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 경우는 제가 맡은 문제와 비슷한 예전 문제를 찾아 비교하고, 예전 문제의 풀이방식을 이번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 및 토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전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풀이방식을 만들어 적용해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열심히 문제를 분석해서 나름의 풀이방식을 만들었지만, 결국 실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풀이방식을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 실전에서 평소보다 훨씬 심적으로 쫓기는 가운데 기존의 풀이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렇게 기존의 풀이방식을 적용한다는 학원식 발상이 위에서 언급한대로 문제풀이 알고리즘을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명과 토론의 논거로서 기존의 문제를 적극 활용한 것은 괜찮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기에, 토론형 스터디를 운영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일단 그간 쌓인 기출문제를 푼 후, 이후 미트 언어논리와 피셋을 풀다가,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언어·추리 모두 학원문제를 풀었고, 한 달 전부터 다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학원해설이나 강의 등은 참고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토론만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리트스터디를 다시 한다면 토론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되, 당시보다 기출문제가 더 쌓인 만큼 학원모의고사의 비중을 줄이고 기출 문제의 비중을 더 늘릴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할수록 모의고사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용으로만 이용하고, 실전과 유사한 기출문제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독서는 하면 꽤 좋지만, 굳이 스티디를 통해 독서토론 등을 하기보다는 혼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리트에 초점을 맞춘 독서토론을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취약했던 철학·과학 분야의 책을 주로 읽었는데, 여러 책 중에서도 '동양철학에세이' 같이 해당 분야의 시대적 흐름이 담긴 책이 기본기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트 대비용 추천도서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변명'처럼 특정인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도서보다는 '서양철학사'처럼 각 분야의 사조가 알고 넓게 담긴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3년차(2014년)

3년차에는 상반기 내내 취업준비를 하다가 시험 한 달 전부터 리트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시간이 많이 없었기에 시간관리를 중점적으로 연습했고, 점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시간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제 버리는 연습을 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추리논증은 14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버리는 연습이 문제를 다 푸는 연습보다 훨씬 목표점수 달성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점수의 변동폭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경우 3문제를 버린다는 가정 하에 쉬운 문제는 2분 30초, 어려운 문제는 3분 30초를 넘기지 않고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며 점수의 변동폭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목표한 점수가 나온 것은 물론입니다. 버리는 문제는 논증이 아닌 추리문제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수리추리는 풀 수 있는 문제도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수리추리는 처음의 풀이가 잘못되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몽땅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이해는 추리논증보다는 덜 문제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동양철학 지문처럼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3문제 중 2문제 가량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없는 지문이 나오면 일단 넘어가되, 다른 지문을 최대한 빨리 풀 후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Ⅲ. 영 어

기준에 있던 영어 점수가 2년차에 말소되어, 2년차에는 토익과 리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토익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어 따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토익과 리트에 1:1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장 반영 비율이 낮은 전형요소이지만, 리트 1점 올리는 것보다 토익 30점 올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IV.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것 같으며,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 간의 편차가 가장 벌어진다는 얘기를 다른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리트시험 후 자기소개서 제출까지 1달 남짓한 기간이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작성이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지원학교의 작년 자소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최소 한 달 전부터 자소서 항목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첫째에는 모 학원의 침삭 서비스와 주변인의 침삭을, 두 번째 해부터는 주로 스테디와 주변인의 침삭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워낙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분명히 보완할 데가 많이 보이는 자소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너무 대충 침삭을 끝마치는 경우를 겪었고 보았습니다. 우선 여러 경로를 통해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많이 구해 읽어보고, 어차피 처음에 쓴 개요는 나중에 완전히 바뀌게 되기 마련이니 개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자소서를 끝까지 써본 후, 계속 스테디원이나 지인을 통해 침삭을 거치면서 자소서를 바꿔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소 2번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대폭 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소서에서 다른 분들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에는 지원학교에 제출할 서류목록은 일종의 증거이고, 함께 내는 자소서는 그 증거의 증명수단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는 말 그대로 증거일 뿐으로, 증거인 서류목록은 자소서의 증명이 있어야만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 500시간이라고 해도, 교수님들이 알아서 '봉사활동 100시간당 서류점수 1점씩, 총 5점 추가.' 이런 식으로 서류점수를 추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500시간의 봉사활동증명서를 재료로 로스쿨이라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설득력 있게 증명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봉사활동 500시간에 걸맞은 높은 서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서류목록에서 교수님들이 좋아할만한 자신의 강점(법학이나 전공에 대한 소양 등)이나 로스쿨에 대한 열정 등을 뽑아내 이를 교수님께 보여드린다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서류목록에 있는 내용들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글감과 관련해서, 꼭 제출서류가 많아야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부·리트·토익 성적표 외에 제출했던 서류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성적표와 약간의 장학금증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제료인 학부 성적표와 부재료인 방통대 성적표만으로 충분히 무난한 자소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성적표가 교수님들이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서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출서류가 많지 않은 분들은 학부 성적표를 최대한 이용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에서는 'A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지금 전공을 선택했다. 학부에서 B 과목을 들으면서 A 분야에서 제 전공과 법학의 결합 가능성을 처음 생각해보게 됐다. 이후부터는 무슨 무슨 과목을 들으면서 향후 그 분야에 필요한 전공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했다.'는 식으로 성적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계획 또한 '학부에서 이런 과목을 수강하며 이런 역량을 쌓았는데 이와 관련해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쓰는 것이 제출서류와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결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학점 중 전공과목 비중이 높으신 분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점이 높아지신 분들은 꼭 자소서에서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적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증빙서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꼭 그 내용을 비중 있게 자소서에 적으시고,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은 꼭 증빙서류가 따라오는 관련 경험을 지금부터라도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첫째 낙방한 후 방통대 법학과에 편입해 헌법·민법·형법을 한 학기씩 들은 경험이 합격에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에서는 법학에 대한 열정과 로스쿨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었음을 어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유독 법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던 작년의 리트 문제와 우리 학교 면접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V. 면 접

첫 해에는 면접학원과 해당 학원에서 구성된 스터디를 이용했습니다. 7월에 리트를 치고 8월부터 면접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으니 꽤 오래 면접을 준비한 셈이지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 논거를 각각 몇개 추출한 후 발표하는 형식의 강의와 기본서를 들고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면접 준비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아닌 공부한 내용에 맞춘 답변이 나오는 면접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중의 면접 대비 기본서는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읽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안으로는 이준일 교수님의 '인권법'과 다음에 있는 유명 커뮤니티의 면접 가이드북을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법학과 출신 분들은 면접 대비를 위해서라도 법학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면접문제로 수험법학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물론 없으나, 예를 들어 계약자유의 원칙, 법률의 해석방법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내포한 문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년차부터는 모의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면접 대비로는 모의면접만한 것이 없습니다. 합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이니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자마자 모의면접을 꼭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스터디의 경우에는 상기한 유명 커뮤니티에서 복원이 잘 된 면접 문제들을 학교를 가리지 않고 모은 후, 실제 시간에 맞춰서 모의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대학교 입시 눈술 문제를 면접 형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몇 번 했는데 이 또한 추천합니다. 면접

지문이 긴 학교는 지문이 잘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지문이 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기출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면접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본 후 소감을 올리는 규칙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기에 다른 분들께도 꼭 권하고 싶습니다.

3년차에는 인성면접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 경우는 2년차에 지원한 학교가 기습적으로 인성면접을 시행하는 바람에 면접에서 제 장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지 못했고, 높은 편이었던 정량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성면접은 나오는 질문이 비슷하고, 미리 대비를 해가지 않으면 즉석에서 좋은 대답을 생각하기가 생각 외로 힘들기 때문에, 인성면접을 시행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분들은 미리 빈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두시고, 모의면접에서도 생각나는 질문을 자유롭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경우는 자기소개, 로스쿨 지원 동기, 가·나군이 모두 붙은 경우 등록할 학교, 제 자신의 장단점, 향후 공부 계획 및 포부, 마지막 멘트, 기타 제 신상이나 제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특히 '진학 후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 것 같은지와 이에 대한 극복 방법' 등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해갔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Ⅵ. 마치며

청탁서에서는 재밋게 써달라는 부탁이 있었지만, 쓰고 나니 재미없는 수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겪은 로스쿨 입시가 많이 힘들었고, 또 로스쿨 입학만으로 벌써 무언가를 이루기라도 한 냥 합격수기를 쓰는 것이 다소 부끄럽기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 딱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리트는 중요하지 않으니 빨리 잊으시고 자기소개서 준비에 들어가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